

완도서 5월 한 달간 '정원 페스티벌'

해변공원에 50개 정원 전시

윤선도원림·난대숲 등 자원 활용

가든 레스토랑·요리 쇼도 마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에서 5월 한 달간 '제3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번 정원 페스티벌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변공원에서 열린다.

'5월의 봄 바다에서 펼쳐지는 빅 가든 페스티벌, 완도 카니발'이라는 주제로 오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펼쳐진다. 개막식은 5월4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완도군은 '2023년 제3회 정원 페스티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행사에는 도비 5억5000만원과 군비 4억5000만원 등 10억원의 사업비가 든다.

완도군은 지난 10월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원 페스티벌에 전시될 작품 50개를 선정했다.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5대 핵심어는 '정원문화 확산' '일상의 휴식' '5월의 어린이' '다양한 콘텐츠' '지역 고유 자원'을 꼽았다.

주민과 어린이, 학생, 상가 등이 직접 가꾸는 참여정원을 확대하고 윤선도원림과 난대숲, 바다 등 완도가 지닌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행사 기간 '작가 정원' 4개와 '참여 정원' 30개, '완도 대표 정원' 1개, '12개 읍면이 꾸미는 섬 자리 정원' 12개 등 모두 50개 정원이 전시된다. 바



5월 한 달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에서 '3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이 열린다. 해변공원 전경.

다와 난대 숲을 주제로 한 정원과 피크닉 가든 등이 전시장을 채운다.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가든 레스토랑과 요리 쇼 등도 마련된다.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이끼 작품 만들기, 비눗방울 체험 등 행사와 인증 사진 촬영공간도 조성한다.

완도군은 지역에서 5월 열리는 장보고 수산물

축제(4-7일)와 전남도 도민체전(12-15일) 등과 연계한 행사도 운영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남 정원 페스티벌은 우리 군에서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기존 정원 페스티벌보다 정원의 개소 수를 대폭 늘렸다"면서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롭게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가수 송가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 개막식 무대

20일... 그룹 '진조크루' 공연도

진도 출신 인기 가수 송가인(사진)이 '진도 신비의 바닷길' 개막식 무대에 오른다.

진도군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진도군 의신면 회동리 특설무대에서 '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개막 축하공연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식전 행사에서는 호랑이 놀이, 진도 북춤으로 흥을 돋운다.

가수 송가인이 개막식 무대에 올라 신명 나는 공연을 펼친다.

세계적 명성을 얻은 비보이 그룹 '진조크루'도 무대를 꾸민다.

앞서 축제 전야제 행사는 오는 19일 진도읍 철마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조항조, 박혜신, 나영 등 초청 공연이 열린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 민속·문화와 트로트, 비보이 등 폭넓고 다채로운 무대 공연을 통해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풀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 삼학동·신안 안좌면 통합지원 식수

통·이장협의회 타임캡슐도 묻어

목포시 삼학동과 신안군 안좌면이 '통합지원 식수'를 하며 목포·신안 통합 분위기를 냈다.

목포시 삼학동 통합협의회와 신안군 안좌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안좌면사무소에서 목포 시화인 백목련을 심었다.

또 목포·신안 통합 지원 '타임캡슐'을 묻었다. 두 단체는 목포·신안 통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자매결연을 했다.

이날 식수 기념식에서 두 단체는 목포·신안 통합이 완성될 때까지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통합 지원 선언문을 읽었다.

선언문과 교류 활동이 담긴 사진을 '타임캡슐'에 넣어 묻기도 했다. 통합을 이루면 타임캡슐을 꺼내기로 했다.

이향숙 삼학동 통합협의회장은 "목포의 시화인 백목련을 안좌에 심게 된 것은 교류를 상징하는 뜻 깊은 일"이라며 "신안과 통합이 하루빨리 이뤄져 타임캡슐을 개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삼학동장은 "통합을 기원하는 두 단체의 오늘과 같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교류



목포시 삼학동 통합협의회와 신안군 안좌면 이장협의회가 지난 11일 목포·신안 통합을 기념하며 안좌면사무소에서 목포 시화인 백목련을 심었다.

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100만평 샛노란 꽃의 향연'...영암 월출산 유채꽃축제

14~16일 천황사 일원서

난타공연·버스킹·농특산물 판매

'제3회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 축제'가 14일부터 16일까지 월출산 천황사 일원에서 열린다.

영암군은 영암농협과 함께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국립공원 월출산을 배경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100만 평의 경관단지를 조성했다.

이 곳에서는 봄에는 유채를 재배하고, 여름에는 메밀을 파종해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 관광농업을 육성하고 있다.

영암월출산경관단지 유채꽃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영암군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100만평 유채꽃 향연, 영암을 물들이다'란 주제로 펼쳐진다.

축제 첫날인 14일에는 식전행사인 '난타공연'을 비롯해 오후 4시 개막행사와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어 15일 오전 10시부터 방문객들과 함께하는 유채꽃길 걷기대회, 월출산 유채꽃 사진 전시전, 포토존 운영, 길거리 버스킹, 농특산물 판매장 등이 운영된다.



전국 최대 규모의 영암 월출산 유채꽃단지.

축제추진위는 이번 유채꽃 축제가 ▲월출산 천황사지구 경관단지 조성사업 홍보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마을주민 참여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농외소득증대 ▲영암 월출산 인근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농협과 상생협력 모델의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는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아 월출산 배경 아래 끝없이 펼쳐진 노란 봄의 물결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한빛원전, 영광 군남아동센터에 차량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가 12일 공립 영광 군남지역아동센터에 차량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4월15일 문을 연 군남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로 현재 아동 19명이 이용하고 있다.

센터에선 예술적 접근을 통한 정서 돌봄과 정신적 성숙을 목표로 타악기 전문 밴드를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리아 투어러 11인승 차량을 지원해 아동들의 안전한 등·하원과 문화 활동 시 이동을 도울 예정이다.

이화웅 한빛원전 대외협력처장은 "군남지역아동센터가 건전한 놀이 활동과 문화생활 지원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